

사탄이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날

- 복음으로 여는 스바냐 -

스바냐 3:14-17, 요한계시록 20:1-10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직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소통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저희를 창조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먼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개인, 가정, 산업, 모든 부분이 응답받고 충만히 채워지는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불신앙도 완전히 치유되어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직 복음으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각인과 뿌리,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바냐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먼저 서론이다.

1. 스바냐 선지자는 누구이며,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1) 스바냐 선지자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즉, 스바냐는 남은 자,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받은 선지자였다. 남은 자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전도가 한으로 남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본 사람이 바로 남은 자이다. 이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들은 성도, 구별된 자, 렘넌트, 그루터기, 숨겨둔 자, 선택된 자, 예비된 자이다. 우리에게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남은 자가 되었다. 남은 자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되는 사람, 전도가 항상 마음에 있는 사람이다. 항상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셔서 남은 자로 남기셨어.’ 요셉은 이러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도 모든 상황에서 지극히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기 바란다.

(2) 그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으로 왕족이었다.

(3) 그가 예언한 시기는 요시아 왕(B.C 640-609) 시대 초기였다.

2. 스바냐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1)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는 ‘그 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주로 1장에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2장에서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징계와 멸망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3장에서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응답과 축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많은데 어떻게 다시 축복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는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것이다. 그 인물이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3. 시대적인 배경과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이다.

(1) 히스기야 왕 이후로 악한 왕들이 오랫동안 다스리고 있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했다. 복음이 선포된 시대였고,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다. 그런데 그 훌륭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다. 그 다음에 암몬이라는 왕도 굉장히 악했다. 요시아 왕은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이미 그 시대가 이상승배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 그 때 하나님은 스바냐를 부르셨다. 스바냐 1장 1절이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와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는 말하자면 왕족이었던 것이다. 그 때 당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오래된 종교적인 악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전통이 되어 있었다. 훌륭한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가 좋은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 이상승배 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재앙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 그 때 스바냐를 부르신 것이다.

(2) 어떤 잘못을 했을까. 무속 점술 우상이 사회에 만연한 상태였다. 스바냐 1장 4절이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 곳에서 멸절하며(우상)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다. 스바냐 1장 5절이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못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점술)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말감도 믿고 이상섬기는 것이다. 종교혼합주의인 것이다. 그래서 언약이 희미해진 것이다.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것이다.

(3) 그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3장 1절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박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3장 3절에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사람들은 무섭게 부르짖으면서 백성들을 노예, 짐승보다 못 하게 다루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며,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사악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4) 그리고 사회는 불법과 부정과 착취가 만연한 상태였다.

1. 본론으로 당시 남유다왕국의 옛 틀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옛 틀의 의미는 재앙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탄이 가져다준 12가지의 울무, 틀, 함정에 빠진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기를 바란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에서 멀어지면 결국은 처참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깨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임을 믿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재앙을 끊어버리고 복음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저주가 넘어가지 않도록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문제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 ‘왜 이 문제가 왔을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문제가 나에게, 가정, 가문, 나라에게 왔구나.’ 강단말씀의 제자가 되는 것이 재앙과 저주를 끊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는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 완전히 멸망하겠다고 경고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서도 그러한 징계를 받게지만 그렇지 않다해도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며 최후의 심판의 날이다. 그 날에는 사탄도 결박당하고 우리 앞에 영원히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2) 1장 6절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대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예수는 믿지만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과 같다. ‘평소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불신자)들을 멸절하리라’ 정말로 저주와 재앙을 내리고 멸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은 교회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3)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만 좋아하고 명품만 좋아하는 사람들, 일명 금수저들과 재벌들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다. 1장 8절이다. ‘여호와와 회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방백은 고급 공무원들을 말한다. 이방인의 옷은 말하자면 명품인 것이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러한 내용을 적은 이유는 스바냐 선지자 자신이 왕족이었고 이 스바냐서를 전달하기 위한 일차적인 독자는 왕족과 귀족들이었기 때문이다. 요시야 왕은 율법을 발견하기 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종교개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스바냐 선지자는 서밋 캠프에게 서밋 전도를 한 선지자였다. 우리 캠프들이 바로 이러한 응답을 받기를 바란다. 리더,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한다. 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야 한다.

(4)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1장 12절이다. ‘그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되는데?’ 단 1년도 믿어보지도 않고,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내가 수없이 이야기한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루를 끝내고 돌아보면 5번 이상은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이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실수하는데도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신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시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를 등불로 찾고 계신다. 1장 13절이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니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스바냐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징계는 마지막 때에 있을 최후의 심판과 복선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2. 그렇다면 이러한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 틀은 무엇일까?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1) 하나님께서는 언약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쥘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구스 사람들이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앗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 같이 매마르게 하리니’ 스바냐 2장 9절-13절이다.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구스 족속, 앗수르와 니느웨를 황폐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2장 9절에 보면 ‘나의 남은 백성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주변에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었던 족속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우리를 남은 자로 축복하실 줄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2) 스바냐 3장 7절에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며,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스바냐서 3장 15절을 보겠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언약, 복음만 붙잡으면 된다.

(3) 임마누엘 축복을 약속하셨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임마누엘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장이기 때문이다.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때부터 보장받는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나같은 사람인데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리스도로 결론이야 한다. ‘나는 절대 안 바뀌어. 나아지지 않아.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거듭나지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다.

(4) 재앙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기 때문이다.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그것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5) 우리들을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을 벌하고, 악한 자를 구원하시며,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결국은 온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스바냐 3장 19절의 말씀이다. ‘그 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다윗처럼 직접 원수 갚지 말고, 기도하며 지극히 선한 선택을 하고 연약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다.

(6) 3장 20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약속하시기를 결국은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것이 세계복음화이다. ‘내가 그 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 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풀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와 나의 말이니라’

오늘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스바냐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발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스바냐서에서 붙잡을 언약은 여호와와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다.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징계의 날이지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날,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명성과 칭찬을 받는 그 날이 올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들의 비전은 스바냐 3장 9절처럼 237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날까지 복음을 증거 하는 것이다.
3. 다음은 Dream 꿈이다. 우리들의 꿈은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에게 복음을 전하여 종교개혁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후대들이 서밋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다.
4. Image 이미지, 기도이다. 스바냐 선지자가 시대의 문제를 놓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구가 멸망하는 마지막 시대까지 보았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확실히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겠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한 주간도 스바냐처럼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서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